

## 2017 여름휴가 여행 조사 - 여행 경험 및 인기도 -

- ▶ '17년 10월 23일 (월) 배포
- ▶ 자료 총 3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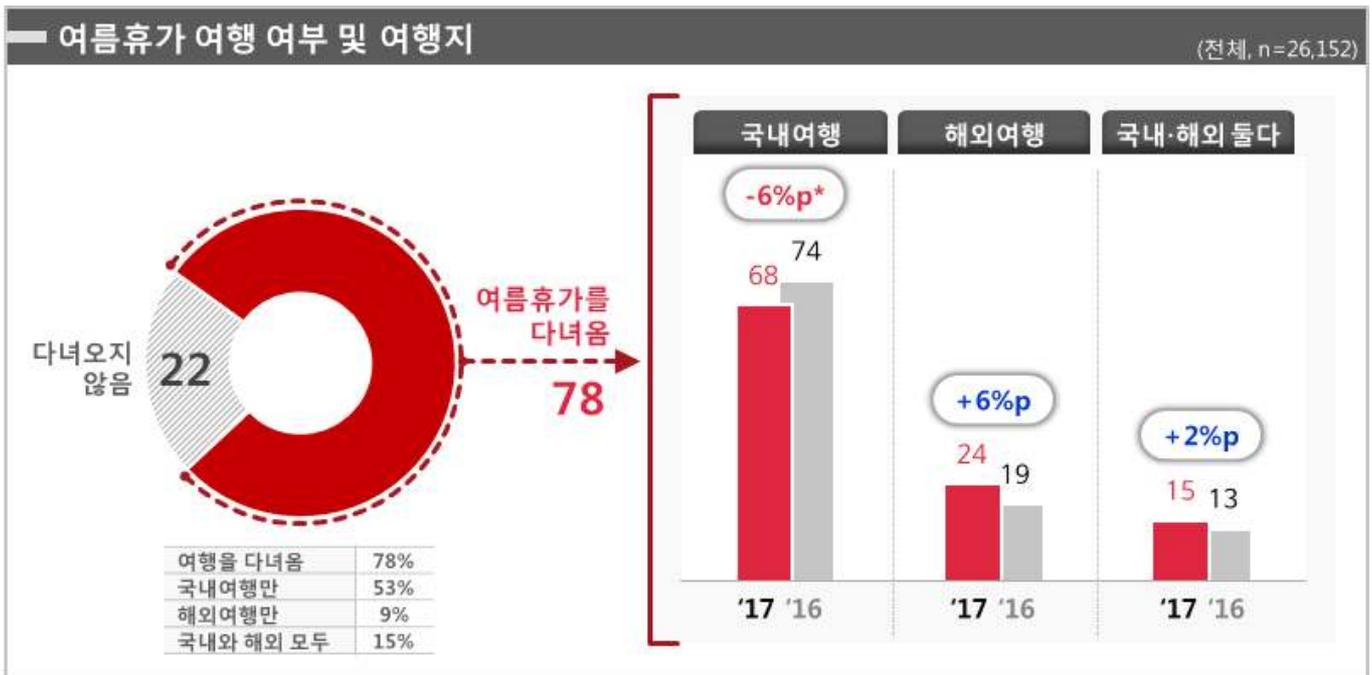
기 관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책 임	김형곤 소장/Ph.D/대학원 교수
문 의	김민화 연구원/Ph.D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연 락 처	02) 6004-7643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 여름휴가 여행, 78% 다녀와

- 앞뒤 황금연휴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3%p 줄어
- 국내여행 대폭 감소한 만큼 해외여행 증가
- 계속된 장마로 바다/해변산/계곡 즐기고, 도시 방문 늘어

지난 6~8월, 3개월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 78%가 1박 이상의 여름휴가 여행을 다녀왔다. 작년과 비교해 3%p 감소했으며, 주된 감소 이유는 여름휴가 전에는 '5월 징검다리 황금연휴', 후에는 '사상 최장 10일의 추석연휴'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계속된 장마의 영향도 있다. 바다·해안 지역이나 산·계곡 대신에 도시지역을 찾았고, 국내 보다는 해외로 나갔다.



Q. 귀하께서 여름휴가로 여행하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Gap (17년-16년), 반올림 오차주의

[그림1] 여름휴가 여행 여부 및 여행지

여름휴가 기간(6~8월) 1박 이상의 국내여행 경험은 68%, 해외여행은 24%였으며, 국내·해외 모두를 다녀온 사람도 15%였다. 작년 보다 국내여행은 6%p 줄고, 반대로 해외여행은 그만큼 늘었다. 7월·8월의 장마와 폭염이 국내 대신 해외를 선택하게 만들었다[그림1].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는 단연 강원도(23.1%)였으며, 다음은 제주도(12.2%)였다<표1>. 전라남도(8.8%), 경상남도(8.5%), 부산시(8.3%)는 비슷했으며, 경상북도(7.9%), 경기도(7.5%), 충청남도(6.4%) 등이 뒤를 따랐다. 여전히 강원도는 우리나라 대표 여름휴가 여행지지만 작년과 비교해 점유율이 3.2%p 떨어졌다. 반면, 제주도(2.6%p), 서울시(1.8%p), 전라남도(1.2%p), 부산시(1.0%p)는 작년 여름 보다 인기가 있었다. 올해에도 서울시(4.3%)와 부산시(8.3%)를 제외한 5대 광역시(인천시, 울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는 모두 합해 5.4%로 저조했다.

8개 도내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작년 보다 여행객이 증가한 곳과 감소한 곳을 확인했다. 전남 여수시·경북 경주시·경기 용인시·경남 통영시·강원 삼척시는 여행객이 더 늘었고, 강원 속초시·경기 가평군·충남 태안군·강원 횡성군·강원 고성군은 예전만 못했다.

<표1> 국내 여름휴가 여행지 인기도

(여름휴가 기간 1박 이상 국내여행자, %)

국내 여름휴가 여행지_ 시도					인기도 상승 시군 Top 10					인기도 하락 시군 Worst 10				
순위	시도	17년	16년	Gap* (%p)	순위	시도-시군	17년	16년	Gap* (%p)	순위	시도-시군	17년	16년	Gap* (%p)
	(사례수)	(17,904)	(19,078)	-		(사례수)	(17,904)	(19,078)	-		(사례수)	(17,904)	(19,078)	-
1위	강원도	23.1	26.3	-3.2	1위	전남 여수시	3.4	2.3	1.1	1위	강원 속초시	5.2	6.6	-1.4
2위	제주도	12.2	9.6	2.6	2위	경북 경주시	3.0	2.1	0.8	2위	경기 가평군	2.4	3.3	-0.9
3위	전라남도	8.8	7.6	1.2	3위	경기 용인시	1.0	0.6	0.4	3위	충남 태안군	1.9	2.4	-0.6
4위	경상남도	8.5	9.1	-0.5	4위	경남 통영시	2.0	1.6	0.4	4위	강원 횡성군	0.4	0.8	-0.4
5위	부산시	8.3	7.3	1.0	5위	강원 삼척시	1.8	1.5	0.3	5위	강원 고성군	1.2	1.5	-0.3
6위	경상북도	7.8	7.8	0.0	6위	충남 아산시	0.6	0.3	0.2	6위	경기 양평군	0.7	0.9	-0.3
7위	경기도	7.5	8.9	-1.3	7위	경남 김해시	0.4	0.2	0.2	7위	충남 보령시	1.3	1.6	-0.3
8위	충청남도	6.4	7.1	-0.8	8위	전북 전주시	1.3	1.2	0.1	8위	경북 울진군	0.6	0.8	-0.2
9위	전라북도	4.7	5.0	-0.3	9위	전남 고흥군	0.4	0.3	0.1	9위	경남 거제시	1.8	2.1	-0.2
10위	서울시	4.3	2.5	1.8	10위	전남 순천시	0.7	0.6	0.1	10위	강원 동해시	0.9	1.1	-0.2

Q. 귀하께서 여름휴가로 여행하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Gap (17년-16년), 반올림 오차주의

서울과 부산은 여행객 증가가 가장 큰 시도(2위, 4위)에 속했으며, 여행객이 증가한 Top10 시군 중 9개는 중소도시였다. 도시 지역이 대세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감소 지역은 자연 친화적인 시군들이며, 과반수(6개)가 군 지역이었다.

여행의 중심장소가 ‘산/계곡’이었다는 답은 ’16년에는 20.3%였으나 ’17년 16.2%로 무려 4.1%p 감소했다. 장마의 영향으로 보이며, 자연보다는 도시, 야외 보다는 실내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 연구 및 조사방법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기획하여 지난 6~8월 사이에 다녀온 1박이상의 여름 휴가 여행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조사했다. 컨슈머인사이트의 80만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표본틀로 하여 2만6천2백명을 조사했으며, 표본추출은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연령·지역을 비례할당했다. 자료수집은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했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www.consumerinsight.kr/travel](http://www.consumerinsight.kr/travel))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민화 연구원(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Ph.D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

문지효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Ph.D

moonjh@consumerinsight.kr 02)6004-7631

\* 발표자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